

송대극회 제 53 회 가을정기공연

#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작 : JM de 바스콘셀로스  
기획 : 김은성  
연출 : 남재우  
각색 : 송대극회

일시 : 1995년 10월

12일(목) 18:00

13일(금) 14:00, 18:00

14일(토) 13:00, 17:00

장소 : 송실대학교 대학극장

주최 : 송실대학교 송대극회

1921년 연흥회 소인극을 전신으로 하여  
술한 국내외 화제작을  
무대에 올려온  
승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제53회 가을 정기공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1회 대학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바탕으로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대학극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 일신방직주식회사



극회장 / 류성환 (전 93)

## 누군가 말했나요

### “첫번째 풍선만이 아름다운 것” 이라고 ...

긴 시간동안 수많은 공연을 올려온 송대극회인들,  
그들의 땀과 열정이 대학극장을 언제나 편안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선 세번의 정기공연과 열 아홉번의 신입생 환영공연,  
첫째 풍선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셋+열 아홉개의 풍선을 만들지 않았습디다.  
선 셋+열 아홉개의 첫째 풍선을 만들 뿐입니다.  
언제나 첫번째 풍선을 만드는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극이라는  
놀이를 해 갑니다.

누군가 말했나요  
“난 아직까지 연극인줄 알았어”

송대극회의 많은 인물들과 언제나 송대극회를 기다리는 선배님들,  
또 송대극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송대극회 제53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송실대학교 송대극회 동문회 일동

## 연출의 변



“...왜 연극을 하는지, 왜, 왜, 왜...”

연출/ 남 제 우(전자 '90)

1. 90년대 들어 우리 대학가에는 오직 경쟁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여기에 세계화라는 날개까지 달려 남들과의 경쟁에서 떨어지면 끝없는 나라이라도 되듯이 모두 핏대를 올리고 경쟁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도 모른 채... 그 방법면에서는 더욱 우습다. 입사시험 폐지로 부각된 학점과 세계화의 백으로 전공보다 더욱 커보이는 외국어. 둘 사이에서 자신의 개성을 찾는 극회인들을 비롯한 여러몇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애처롭기만 하다.

2. 영화나 TV등의 매스미디어의 엄청난 홍수는 대부분의 연극인들을 대학로로 몰아 넣었다. 시내 곳곳에 깔린 극장과는 달리 연극을 한번 보려면 시간을 많이 내서 대학로까지 가고, 또 영화관람비보다 훨씬 비싼 입장료를 내고도 팜플렛을 사야 한다. 게다가 엄청난 제작비의 영화에 기술적인 면이나 효과적인 면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 관객들이 점점 몇몇 연극인들의 잔치로 바뀌고 대학가 등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연극인들은 마지막 남은 연극의 자존심인 『살아있는 육체의 친밀감』을 곡해하며 저속한 연극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왜 하는가는 모른 채 Know-How는 아침에 눈만뜨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Why는 땅바닥을 땀뭍고 있다. 우리 역시, '왜 하는가'는 잘 모른 채 어떻게 하는가만을 연구해 온것 같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사랑을 하는지, 그리고 왜 연극을 하는지, 왜, 왜, 왜...?  
우리는 여전히 '왜'를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한 마지막 전사들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한다.

## 기획의 변



“...이젠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획/ 김 은 성(정통 '92)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황, 고독, 외로움.  
모든 것이 열정이라는 곳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또한번 혼을 불태운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젠 서서히 종착역이 보인다.  
힘든 시간, 고된 하루,  
이젠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일을 해냈다는 것만으로...  
나는 큰소리로 웃으리라, 자랑스럽게.  
배고픈 연기 속에서 진실을 찾아 온  
극회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도와주신 선배님들, 동기, 후배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1

조제 마우로 데 바스콘셀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브라질의 작가이다. 그는 리오데자네이로의 방구시에서 1920년 2월 26일, 포르투갈계 아버지와 인디언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브라질 중북부 나탈시에 있는 아저씨 집에 기거하며 수영과 각종 스포츠를 배우고 수영참모원을 꿈꾸기도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또한 그곳에서 2년간 의학 공부도 했다.

그 후, 리오로 돌아와 작업을 얻게 되는데 그의 첫 번째 직업은 플라잉급 코치였다. 그는 한 계임당 100 쿠르제이로의 수입을 얻게 되었으나 그것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청년 시절에는, 1914년 문교부 정원에 세워진 조각상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 외에도 그는 스페인 장학금으로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를 가장 원숙하게 해 준 경험은 인디언과의 전투로 긴장감이 가장 팽배해 있는 아라구아아 전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들을 탐험한 사실이었다. 그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채굴꾼들의 무자비한 세계를 묘사한 『성난 바나나』를 1942년 처녀작으로 냈는데,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 후, 1945년 브라질 동북부의 한 열전

을 소재로 한 『하얀 진흙』으로 큰 호평을 얻었다. 그는 또 1949년 자연에 대한 향수를 그린 『머나먼 대지』, 『쌀물』, 『붉은 양무새』, 『불빛』을 계속 발표했다.

1962년, 『장미, 나의 족배』는 그에게 최초로 문학적인 성공을 안겨 준 작품으로 21판까지 발행하게 되었고, 『브라질의 대 국민소설』이라는 평을 얻기까지 했다.

그 후에도 나탈 지방에서의 자신의 청년 시절을 소설화한 『광란자』, 그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린 『바닷가의 종마』, 동물들이 더 서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우화 소설 『유리알 마음』과 『아보보라수사의 고백』을 냈다.

그에게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준 작품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였다. 이 책은 그가 20년 이상을 구상해 왔던 것으로, 1968년 간행당시 브라질 전역에 걸쳐 유례 없는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20만 바라행에 50만 부의 판매기록을 세웠다. 그는 또한 이책으로 굉장히 좋은 비평을 얻었고, 이 책이 영화화되기도 하였으며, 브라질 국민학교 강독 시간의 교재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조제 마우로 데 바스콘셀로는 리오 주 해안 농장의 바나나 배달꾼으로부터 상파울로에서의 사환, 막노동꾼, 어부, 국민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하층 계급의 생활을 모두 겪었으며 이러한 체험들이 그의 표현하고픈 욕구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체험들이 그의 문화저가인 상상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체험 위주의 작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을 쓰기 전에 미리 여행과 탐험을 하고 오랜 기간의 구상을 거쳐 그의 놀라운 상상력과 기억력을 동원, 단시일내에 그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과 사랑'을 묘사하는 작가이다.

그는 작품 진행에서도 신사실주의 수법의 문체를 구사. 그 장면을 독자들이 명확히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회화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는 남부 리오그란데 주 출신의 에리코 베리씨모와 바이아 주 출신의 조르제 아마도와 함께 브라질 문학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미주를 비롯 유럽과 북유럽 심지어 공산권에까지 번역 소개되었으며 파리 소르본 대학 포르투갈어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작품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에서 작가는 감수성이 예민한 다섯살의 한 소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사랑의 문제, 인간 비극의 원초적인 조건, 그리고 인간과 사물(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과의 우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는 인생에서 슬픔이란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갖게 되고, 인생의 양면성을 발견함으로써 동심의 세계를 떠나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3

처음 각색이라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소설 원문을 최대한 살리기도 하고 일화를 중심으로 각색해 나갔다. 기본적인 구성은 전형적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세웠으나, 일화 하나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동의 규모가 커서 전체적 흐름이 부드럽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설이 번역된 데다가(원문을 번역할 수 없어서) 문어체이기 때문에 이를 구어체로 바꾸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사들 중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랜 헤메임 끝에 각색본이 탄생되었다. 수고한 극회원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박원상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STAFF



무대감독 박 원 상(독문88)



무대장치 한 석 운(기계91)



무대미술 소 장 호(전산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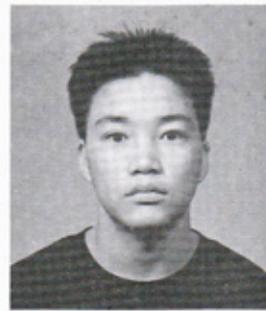
홍보양 현 준(법90)



일러스트 임 가 영(물리94)



조명1 김 심 경(전자91)



조명2 김 귀 히(건축95)



소품 류 은 숙(산공92)



분장1 손 미 리(사사93)



분장2 이 정 미(섬유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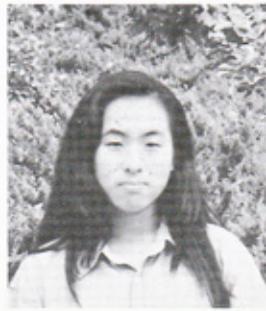
음향 신 허 영(건축95)



의상 류 민 주(국문94)



진행 김 한 준(기계95)



진행 이 지 연(물리94)



음악 임 경 화

CAST



아버지, 뽀루뚜까

김 은 성(정통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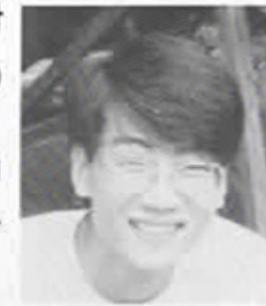
이젠 쉬고 싶다.  
기다려라, 바다여!



제 제(zeze)

서 수 경(정통 '94)

아무말없이 이 공간을  
흔들 수 있다면 ...



아리오발도, 또또까

류 성 환(건축 '93)

바람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글로리아

박 지 희(정외 '95)

항상  
많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부족하다.



밍기뉴

정 재 훈(수학 '95)

이제야 비로소  
내안에 있던  
작은 미소를 발견했다.



비리끼뉴, 마리오

이 정 우(수학 '95)

라면 국물맛이  
달라진다.



선생님, 잔디라

권 내 리(불문 '95)

'나'란 역할도 버거운데...  
'나'란 어떤 연극에서  
울고 웃는 배역일까?

# 세레나데

작사/곡 : 임경화(화학 '87)  
 노래 : 류성환(아리오발도)  
 서수경(제제)

(man)

C<sup>o7</sup> Dm<sup>7</sup> Dm<sup>7</sup>/C<sup>7</sup> C<sup>o7</sup>

푸른 산 봉우리 이 은빛 달이 떠오른 밤

F F<sup>im</sup> C A<sup>7</sup> Dm<sup>7</sup> D<sup>7</sup>/C G<sup>7</sup> G<sup>+</sup>

장가득 스쳐도 - 세레나데 소리 - 장은 깨우 ~~내~~ 음

C<sup>o7</sup> Dm<sup>7</sup>/C G<sup>7</sup> F<sup>o7</sup> C<sup>o7</sup>

그 마음대로 - 노래 이 나의 사랑을 담아

F<sup>o7</sup> C<sup>o7</sup> Am<sup>7</sup> Dm<sup>7</sup> Am<sup>7</sup>/C Dm<sup>7</sup>/G B<sup>b</sup><sup>o7</sup>

가슴에 새겨 두 내 마음은 - 리만향수 다.

(woman)

F<sup>o7</sup> B<sup>b</sup><sup>o7</sup> Gm<sup>7</sup> Gm<sup>7</sup>/F Gm<sup>7</sup>/C

나의 마음은 - 내 사랑의 어린 - 아름다운 여인이여

B<sup>b</sup><sup>o7</sup> F<sup>o7</sup> Gm<sup>7</sup> Gm<sup>7</sup>/F Gm<sup>7</sup>/C

향수만 있어도 그 내음 - 영원히 사랑하려 - 2

F<sup>o7</sup> B<sup>b</sup><sup>o7</sup> Gm<sup>7</sup> Gm<sup>7</sup>/F Gm<sup>7</sup>/C

대 나의 사랑 - 의 여인이여 2

F<sup>o7</sup> B<sup>b</sup><sup>o7</sup> Gm<sup>7</sup> Gm<sup>7</sup>/C F<sup>o7</sup>

대 나의 사랑 - Last 2x 의 여인이여. 1

## 대림스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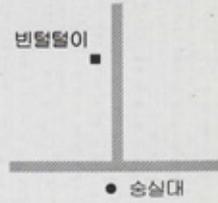
강남시장의 명소!

TEL. 817-9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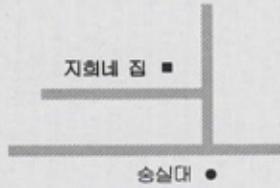
## 빈털털이

낮에는 점심을

밤에는 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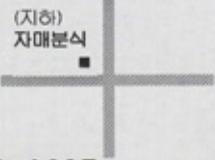
## 지희네 집



## 딕시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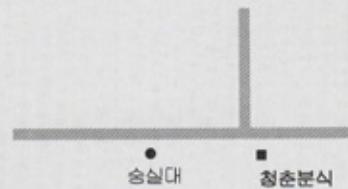
생맥주에 젊음을  
호프의 명가!

## 자매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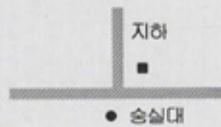


TEL. 816-9835

## 청춘분식



## 큐피드



RESTAURANT

TEL. 812-4360

## 희망의 속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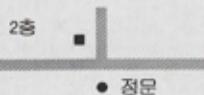
커피+음료  
대화의 장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 연래춘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송실대학교

TEL. 812-9108



## CNN호프

술이 있는 곳  
낭만이 있는 곳!

MEMO

# 정기공연회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흥회소인극 "천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바국 노예의 탈"		
	1923년 7.7, 21	전환극 "우리의 행진" "동태골" "십년 후" "기제인간" 영정창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성후원의 주관		
1	1965년 11.	"폐공으로 돌아오다" 황석영작	이 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들" 이오세소작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정령의 생음"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 끝" 사무엘 베케트작		김양기
7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간담목 삼화" 윤조명작 "달해해죽에 향하여" 인도 지용작 "황금단지"(로마극) 푸라우더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작		정종화 주경서 한영재 유근태 차현재
8	1971년 11.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작		차현재
9	1972년 5.21, 22, 23	"생일파티" H.판타작		한영재
10	1973년 15.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워렌마르작		고봉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판타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 25, 28, 30	"정의의 사람들"(전5막) A.가리작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캐슬의 산벽"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 30, 31	"비더만과 평화범" Max Fish작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터뷰" 장 클로드 판 이발리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뱀" 장 클로드 판 이발리작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레퍼작	백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레퍼작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작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대한민국 연극계 참가) 피터 레퍼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완강 2979" 김영덕작	장재호	이영국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대석작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작	임세범	박양권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4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방문" F.워렌마르작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꽃" 김병중작	전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 13	"카리굴라" A.가리작	윤태용	지 숙
27	1982년 10.7, 8	"레도우 박사" M.크리스토퍼작	전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의 결혼" F.워렌마르작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 8	"트러버" John Bowne작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eh crucible) A. Miller작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벤전쇼" John staltenberg작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9, 10, 11	"민민굴" Maxim Gorky작	김강원	이용섭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바니 - 파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5.4, 5, 6	"에쿠스" "EQUUS" 피터 레퍼작	허성우	하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랄쇼" F.이오세소작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준식	오정열
37	1987년 9.10, 12, 13	"오세" A. Camus작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세련은 짧게 세련은 길게" 아이델작	이충원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돼라? 못내려!" Dario. Fo의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윤조명작	한승범	안현우
41	1989년 10.10, 17, 18	"대상당의 살인" T.S.Eliot작	오정열	이 반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아누이작	권태수	이준식
43	1990년 8.30, 9.1, 2	"한여름대기" 황석영작	한승범	이영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판타작	남재우	권승혜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팔을 불었다" 김상열작	임경화 정현용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금관의 예수" 김지하작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일즈맨의 죽음" A. Miller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택시" 김장수작	소장호 이명성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닥터" 남사이언 작	정석용	소장호
51	1994년 9.29, 30, 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작	소장호	박원상
52	1995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은미작	현승욱	류성환
53	1995년 10.12, 13, 14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JM 바스콘셀레스작	김은성	남재우

# 신입생활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아와 뽕" W.Aning작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택작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작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셋" 이강택작	한 철	장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St. V. Millay작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 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작	최사영	이용섭
7	1983년 4.16	"블랙오베디" 피터 레퍼작	전희식	홍여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인" N.Holand작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t.V.Millay작	이영민	하승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헨리 임선작	이강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년 3.12, 13, 14	"다려운 손" J.P 사르트르작	백은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작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죽은수를 위한 진혼곡" A.Camus작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ch Strau-β	이영민 안상준	박혜숙 백보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작	정현용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꿈먹고 풀마시고" 이근삼작	김상경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메두사" Georg Kaiser작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왕자" 생텍쥐페리작	이명성	홍석환



# 온누리에 맑고 깨끗하게 퍼져라



고운 모래로 좋은 유리를 만듭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희미한 곳에 또렷함을,  
막힌 곳에 시야를 열어주는 유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을 맑고 아름답고 이롭게...

한국유리는 더 좋은 유리를 통해 그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맑고 아름답고 이롭게 —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